

不安을 函數로한 好惡情報의 自己關聯處理

金 滌 琛
(啓明大學校 心理學科)

不安한 사람은 덜 불안한 사람보다 認知的 遂行水準이 낮다는 소위 불안의 遂行缺損效果의 變容可能性을 검토해 보았다. 보다 具體的으로 보아 個人性格記述의 好惡情報를 自己와 關聯시켜 情報處理하도록 하면 遂行缺損效果는 어떻게 變容하는지를 實驗해 보았다. 性格特性을 나타내는 形容詞중에서 좋아할만한 內容의 것 40個를 가지고 好感情報로 그리고 바람직하지 못한 內容의 것 40個를 가지고 厭惡情報로 利用하였다. 不安(2)×材料의 自己記述度(2)×材料의 好惡度(2)의 混合設計를 가지고 實驗 I에서는 材料內容을 評定케 함으로써 自己關聯處理하게 하였고 그리고 實驗 II에서는 意圖的 學習條件을 利用해 보았다. 認知的 걱정要因만으로 不安水準을 測定하였다.

첫째, 不安水準이 增加하면 自己管理現象은 따라서 增加하였다. 自己表現情報의 自己管理는 一般的으로 보아 課題不適切하다. 둘째, 個人的 狀態를 表現하는 材料라고 하여 그의 處理가 반드시 自己關聯的인 것은 아니다. 셋째, 自己性格狀態에 관한 情報를 自己關聯하여 處理하면 不安의 遂行缺損效果는 有意하게 變容하며 그것은 厭惡的 材料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이들을 端緒活用制限假說에 따라서 論議해 보았다.

不安水準이 높은 사람은 낮은 集團의 사람과 比較해 보아 認知的 遂行水準이 낮다는 것을 例證하는 研究들은 상당히 廣範圍한데 (예컨대, McKeachie, Pollie. & Spiesman, 1955; 金滌琛, 1981), 이들 文獻들은 不安이 把持에 미치는 負的인 遂行缺損效果를 일반적으로 에너지資源配分理論(energy resource allocation theory)에 따라서 說明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불안한 사람은 成功의 缺如 또는 失敗의 知覺을 中心으로 철저히 自己沒頭 내지 自己管理(self-monitoring)하며 이러한 自己批判的 處理는 投入情報를 處理하는데 쓸 수 있는 한정적인 情報處理에너지 容量의 일부를 使用하게 된다. 이러한 結果로 인하여 막상 記憶해야 할 事象(TBR)을 略號化하는데 配分할 수 있는 資源에너지는 制限的이게 되며 이러한 制限은 認知的 遂行을 低下시킨다고 推論하게 된다. 다시 말

하면, 불안한 사람은 緊張이, 本研究와 같은 경우는 認知的 걱정이, 導入되면 否定的 自己管理에 沒入하며, 이 때의 自己管理는 課題에 不適切한(task-irrelevant) 事象이라고 간주하게 된다. 結果的으로, 不安水準이 높은 被驗者들은 課題에 適切한 材料에 注意集中하는 것이 制限되며, 그리하여 略號化가 比較적으로 보아 좁고 알아지며, 組織戰略의 融通性이 不足하며, 그리고 端緒選擇의 單純化와 같은 特徵들을 보이는 것이라고 說明하고 있다(예컨대, 金滌琛, 1981).

다른 한편으로, 圖式(schema) 理論도 不安에 따른 遂行缺損效果를 說明하는데 상당한 說得力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理論에서는 自己狀態를 表現하는 情報의 處理를 說明하기 위하여 原型(prototype) 또는 圖式 즉 圖式이라는 理論的構因을 提示하고 있다. 예컨대, Markus(1977)와 Cantor와 Mischel(1977) 등은 個人的 材

료를 組織化, 要約 및 說明하는데 自己圖式(self-schema)라는 概念을 活用하고 있다. Markus(1977)는 自己圖式은 自己에 대한 認知的의 一般化이며, 過去經驗에서 導出된 것이며, 그리고 自己에게 關聯된 情報을 組織化하고 그리고 案内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自己圖式은 流入刺戟과 相互作用하여 處理를 歪曲시킬 수도 또는 促進시킬 수도 있게 된다. 우리는 自己란 個人的 態度, 信念, 自己知覺등을 要約하고 있는 側面(feature)들의 리스트이며, 그리고 이들은 記憶에서 하나의 複合體로 저장되어 있다고 概念化해 볼 수 있다. 물론 이들은 過去の 經驗에서 導出되었을 것이고 流入하는 情報材料과 相互作用하겠지만, 과연 그것이 어떠한 樣式으로 作用하는 것인지는 아직은 分명한 對答을 할 수가 없다. Tyler와 Voss(1982)는 自己的 態도와 一致하는 情報을 더 잘 記憶한다는 證據를 가지고 自己圖式은 하나의 組織化틀(organizing frame)로서 作用하며 이 틀이 自己態度支持的 材料를 略號化하고 引出하는 것을 增進시킨다고 본다. Keenan과 Baillet(1980)는 自己記述의인 情報은 既存의 認知的構造에 統合되기가 쉽기 때문에 再生이 더 잘된다고 보고 있다.

마지막으로, 不安效果에 대한 欲求理論分析(drive theory analysis)를 언급해 보아야 했는데 (Spence & Spence, 1966), 여기에서는 興奮水準이 增加하면 그 때 支配的이던 反應이 보다 쉽게 活性化된다고 豫測한다. 이러한 結果로 인하여 쉬운 課題의 反應은 促進되고, 반대로, 어려운 課題의 反應은 妨害를 받게 된다. 學習의 初期試行에서 보면 쉬운 課題의 경우는 正反應이 支配的이고, 반대로 어려운 課題에서는 誤反應이 支配的인 傾向이 있다. 이와 關聯하여 Parkin, Lewinsohn 및 Folkard(1982)는 情緒가 記憶에 미치는 效果를 論議하면서, 情緒自體는 記憶에 效果가 없고 다만 그것은 興奮水準의 變化에 影響을 미치며 그리하여 結果의으로 習得에 影響을 미친다고 말하고 있다. 不安이 習得段階에서 미치는 效果는 內容의 難易度뿐만 아니라 材料의 組織化 程度(Eysenck, 1977). 그리고 課題解決에서 이전에 處理・貯藏해 두었던 內容의 記憶・引出에 依存하는 程度등이 媒介하

고 있는 것 같지만 處理後의 干涉 즉 引出干涉에 대한 研究는 별로 없다(Tobias, 1977).

그런데, 不安水準이 높은 사람이 認知的 課題 遂行에서 缺損現象을 보이고 있음을 證據하고 있는 많은 研究들은 대부분 情意的 音調(emotional tone)로 보아 中立的인 材料를 利用하고 있고 被驗者自身이 가지고 있는 自己圖式의 關聯속에서 새로운 情報을 處理할 것을 指示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다시 말하면, 材料는 좋아할 만한 것이거나 싫어할만한 어떤 것이기에 正的 또는 負的 情意價를 특별히 갖고 있는 것이 아니며 그리고 指示들은 “될 수 있는데로 많이 記憶해 보라”고 하는 다분히 傳統的인 것이다. 이러한 脈絡에서 檢討해 볼 때, 다음과 같은 疑問을 提起해 보는 것은 意義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 즉 處理해야 하는 材料가 自己自身の 行動特性目錄리스트로서 情意的인 音調를 내포하고 있는 것일 때 그리고 이러한 情報材料를 自己를 焦點으로 하여 處理하도록 指示한다면, 높은 不安水準이 把持에 미치는 遂行缺損效果는 變容하는 것일까? 材料와 處理戰略에 따라 不安의 缺損效果가 變容하리라는 것이 바로 本研究의 假說이 된다. 이 假說의 展開論理는 비교적 간단하다. 不安한 사람들의 圖式은 危脅 또는 危險이라는 觀念에 의하여 支配되어 있으며 그리고 具體的으로 檢査不安의 認知的의 걱정要因의 경우는 圖式의 中心主題는 失敗로 볼 수 있다. 그리고 失敗로 壓倒된 自己的 管理・處理란 實驗者가 外的으로 提示하는 中立的의 刺戟으로 이루어져 있는 TBR 課題에는 不適切하고 競爭的이며, 이러한 不適切하고 競爭的인 것에 에너지를 配分하고 處理하다 보면 TBR 課題에 대한 認知的 遂行水準은 떨어진다고 說明하였다. 그러나 處理해야 하는 情報課題가 바로 자기의 行動特性을 記述하고 있는 리스트이며 더우기 그러한 材料를 自己 스스로와 關聯시켜 注意集中하여 處理할 것을 要求한다면 높은 不安의 사람들이 보여주는 自己管理 내지 自己沒頭는 이미 바로 TBR 課題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즉 그것은 이미 課題에 不適切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課題에 適切한 것이라고 看做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높은 不安이 미치는 遂行缺損效果는 變容될 수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서 好惡側面의 情報에 따라서는 不安水準이 높을 때, 그에 따라서 情報處理가 肯定的으로 促進될 수 있음도 期待해 볼 수 있다. 또한 不安한 사람은 結集缺損(Eysenck, 1977)을 보일 뿐만 아니라 持續的인 記憶痕跡을 형성하는데 필요한 깊은 屬性(attribute)에 대한 注意集中이 제한되어 刺戟의 語義的 處理는 무시하고 物理的 屬性을 주로 處理한다(Schwartz, 1975). 환언하면, 不安한 사람은 自己에게 깊이 沒頭하여 있기 때문에(self-preoccupied), 덜 不安한 사람보다 材料를 깊이 處理하는데 더 많은 時間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理論的 觀點에서도 研究의 假說은 注目해도 좋겠다.

이러한 論理展開과 관련된 研究들도 없지는 아니다. 自己의 特性을 나타내고 있는 材料, 이른바 自己記述的 材料가 自己를 表現하고 있지 아니한 材料, 이른바 自己非記述的 材料보다 記憶이 더 잘되며(Bower & Gilligan, 1979; Rogers, Kuiper, & Rogers, 1979) 그리고 性格特性中에서도 좋아할만한 것을 나타내는 形容詞리스트, 즉 好感情報(likable)가 中立的이거나 좋아할 수 없고 바람직하지 못한 性格特性을 表現하는 厭惡情報(unlikable)보다 把持水準이 높다는 報告들도 있다(Anderson, 1968; Tyler & Voss, 1982). Keenan과 Baillet(1980)은 被驗者들로 하여금 주어진 單語들이 自己를 記述하고 있는지를 評定하게 함으로써 情報材料를 自己와 關聯하여 處理하도록 操作해 본 다음 自己記述的 情報가 自己非記述的 情報보다 더 잘 記憶됨을 發見하고 그것을 웨마에의 統合容易性 때문이라고 說明하고 있다. 本研究에서는 性格을 表現하는 形容詞들 중에서 바람직한 好感情項리스트와 바람직하지 못한 厭惡項리스트를 만들어 情意的 音調의 材料로 利用해 보았다. 예컨대, “정직한”이란 形容詞는 好感情項에 그리고 “음흉한”은 厭惡項에 屬하게 된다. 우리는 이러한 情報項目들은 中立的인 情報들과는 달리 特別한 指示가 없더라도 自己와 關聯시켜 다룰 때가 흔히 있다. 例가 되는 “醫大生 症候”(medical student's syndrome)에서 처럼, 대부분의 記述들이 自己自身에게 꼭 맞는 것이며

그리하여 그들은 바로 自己를 表現하고 있다고 믿기 쉽다. 이러한 材料들을 附隨的 學習條件에서 自己를 中心으로 評定하게 하거나 이와는 달리 傳統的 記憶指示를 利用하거나 하는 두가지 方法으로 情報의 處理戰略을 操作해 보았다. 이러한 設計는 提起한 問題에 대하여 한층 分析的인 結論을 提供해 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

方 法

本研究에서는 實驗Ⅰ과 實驗Ⅱ의 두가지를 實施해 보았다. 實驗Ⅰ은 附隨的 學習條件에서 好惡的 情報材料를 自己와 關聯하여 評定하게 하는 것이며 그리고 實驗Ⅱ는 意圖的 學習條件에서 “될 수 있는대로 많이 記憶토록 해보라”고 하는 定型的인 記憶指示를 活用하였다. 이제 實驗Ⅰ부터 始作하여 方法論을 說明해 본다.

對象: 被驗者는 啓明大에서 心理學概論을 受講하고 있는 42名의 大學生들로 構成하였다. 이들은 實驗에 任意로 參加하였지만 參加에 대하여는 科目履修評價에 다소의 附加點數를 주었다. 이들은 設計에 따른 實驗條件에 完全無選配 置되었다.

設計: 研究의 設計는 不安(2)×材料의 自己記述度(2)×材料의 好惡度(2)의 混合要因設計로 하였다. 不安變因은 被驗者間 變因이고 自己記述도와 好惡度の 두가지 變因은 모두 被驗者內 變因이었다. 不安變因은 上位의 高不安集團과 下位의 低不安集團의 두가지 水準을 가진다. 이러한 分類는 Worry-Emotionality Questionnaire(Liebert & Morris, 1967)의 10個問項中 “걱정”(Worry)要因의 5個問項만을 翻案하여 製作한 檢査不安尺度에서 15點 이상을 上位 그리고 10點以下를 下位不安集團으로 定義한데 依據하였다. 이들 各問項들을 「設問의 內容은 나의 感情이나 條件等을 記述하지 못하고 있다」에서 始作하여 「그것을 아주 강하게 느낀다」에 이르는 5段階에 따라 評定토록 하였다. 따라서 이 檢査不安尺度는 5~25點의 點數範圍를 가진다(이와 유사한 不安測定에 대하여서는 예컨대 Benjamin, Mckeachie, Lin & Holinger, 1981을 參考할 수 있다). 自己記述

度變因은 슬라이드로 提示한 「形容詞」의 材料內容이 自己의 性格特性을 記述하는 것인가 아니면 反對로 自己의 性格特性을 表現하지 못하는 非記述의 것인지를 評定하게 한 것을 말한다. 그리고 好惡度變因은 「形容詞」의 內容이 좋아할만한 好感的인 것인가, 아니면 좋아할 수 없는 厭惡的인 것인지를 말한다. 전체 80個의 形容詞리스트 項目들중 40個는 好感的인 項目이고 다른 40個는 厭惡的인 項目이었다. 결국 自己記述度變因과 好惡度變因은 共히 被驗者內變因으로서 각기 두개의 水準들을 가지게 되었다.

材料：實驗材料란 바로 앞에서 언급한바 있는 好惡의 情報材料를 말하는데 이의 製作過程을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關係文獻(예컨대, Anderson, 1968)과 辭典등을 參考하여 性格特性을 나타내는 形容詞 386個를 選定하였다. 이러한 形容詞리스트를 作成할 때는 너무 긴 單語이기 때문에 슬라이드에 타자하기 어려운 것, 極端的인 內容인 것, 性的 또는 猥褻的인 것, 그리고 語尾가 「~있는」 또는 「~없는」등으로 되어 있는 單語들은 가능한데로 除外시켰다. 다음으로 이들을 가지고 本實驗과는 獨立的인 別途의 大學生 180名에게 4段階에 따라 心像價(imagery value)를 그리고 7段階에 따라 好惡度を 評定케 하였다. 心像價의 4段階는 「모습이 거의 떠오르지 아니한다」에서 「모습이 아주 분명하게 떠오른다」에 이르며 각기 1~4點을 주어 採點하였다. 그리고 好惡도는 나타난 內容의 性格特性이 「대단히 좋다」에서 「대단히 싫다」에 이르고 있으며 각기 1~7點을 주어 採點하였다. 먼저 平均心像價가 3.15以上인 單語 147個를 뽑았으며 다음으로 이들 중에서 平均好惡價가 5.10以上인 形容詞 項目을 好感項으로 그리고 2.50以下인 것을 厭惡項으로 分類하였다. 本實驗에서 사용한 好感項과 厭惡項은 각기 40個이다.

節次：우선 各 形容詞 單語別로 한개씩 슬라이드를 만들었으며 그리고 슬라이드 프로젝터를 利用하여 한번에 한 슬라이드 씩으로 이들을 提示하였다. 各 單語슬라이드의 提示時間은 2秒, 그리고 提示間 間격도 마찬가지로 2秒씩으로 하였다. 80個 形容詞들로 構成되어 있는 리스트

를 각기 한번씩 모두 提示하는 것을 1回試行으로 하여 合計 3回試行 提示하였는데 그 때마다 形容詞의 提示順序를 無選으로 變化시켰다. 이 實驗은 附隨的 學習條件을 採擇하여 情報材料를 自己의 性格特性과 關聯하여 評定토록 했음은 이미 언급한바 있다. 이를 좀더 具體的으로 보면 被驗者들은 1回試行동안에는 材料의 自己記述度(self-descriptiveness)를, 2回試行동안에는 親近度(familiarity), 그리고 3回試行동안에는 個人的 有意味度(personal meaningfulness)를 評定하게 하였다. 이들 세가지의 評定은 각기 주어진 形容詞內容이 얼마만큼 自己가 가지고 있는 性格特性을 記述하고 있는가, 自己에게 낮익고 親近한 것인가, 그리고 그러한 性格特性이 自己自身에게 얼마만큼 重要하고 意味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지를 각기 4段階에 따라 評價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評定은 自己의 性格을 焦點으로 하여 새로운 情報材料를 統合·處理할 것을 要求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특히 自己記述度評定에서는 「결코 나를 기술하지 않는다」에서 「그대로의 나를 아주 잘 기술하고 있다」의 4段階를 利用하였지만 밑의 두段階에 屬하는 것을 自己非記述로 그리고 위의 두段階에 屬하는 것을 自己記述로 分類하였다. 親近度評定과 個人的 有意味度評定은 定位課題(orienting task)로 쓰인 것이기 때문에 詳論을 省略한다.

실제 實驗의 學習局面(study phase)에 들어가기 전에 評定方法등을 中心으로 하여 指示하였으며 이어서 實驗의 要求內容을 확실하게 理解토록하기 위하여 약 3分間 練習하였다. 이어서 質問을 받고 補充說明하였다. 그리고 研究에서 分析한 것은 好感項 40個와 厭惡項 40個이지만 리스트의 앞부분에는 首位의 效果를 막기 위한 3個의 形容詞緩衝單語(buffer word)를 그리고 리스트의 맨 끝부분에는 最新의 效果를 막기 위한 또 다른 세개의 形容詞緩衝單語를 使用하였다. 이들은 물론 資料分析의 對象이 되지 아니하였다.

實驗Ⅱ는 實驗Ⅰ이 附隨的 學習條件을 採擇한 데 대하여 意圖的 學習條件을 援用했다는 차이 이외에는 實驗의 節次와 材料等 모든 면에서 實

驗 I 과 同一하다. 다시 말하면 實驗 I 에서는 形容詞리스트를 3 回試行提示하고 그때마다 評定케 하였지만 여기에서는 指示를 달리하였다. 즉 實驗 II 에서는 提示되고 있는 形容詞單語들을 가능한데로 많이 記憶토록 해보라고 要求하였다. 물론 記憶을 도와줄 수 있는 어떠한 補助具의 사용도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意味에서 實驗 II 는 意圖的 學習條件을 利用하고 있다. 對象은 實驗 I 과는 獨立的인 別途의 42 名의 啓明大 大學生이었지만 이들을 被驗者로 選拔하고 配置하는 方法은 實驗 I 과 마찬가지로였다. 實驗 I 과 實驗 II 共히 슬라이드 提示가 끝나는 即時로 即時自由再生檢査(immediate free recall test)를 實施하였다. 그런 다음 本實驗과는 전혀 關

係가 없는 生理研究關係 슬라이드를 한 時間동안 試演防止課題로서 上映하였다. 이처럼 한 時間을 遲延시킨 다음 遲延再認檢査(delayed recognition)를 實施한 것도 이들 두가지 實驗에서 共通의이었다.

結 果

먼저 附隨的 學習條件을 採擇하고 있는 實驗 I 의 結果를 그리고 이어서 可能한데로 이와 關聯시키면서 實驗 II 의 結果를 提示해 보기로 한다. 實驗 I 의 結果를 檢査別 및 變因類別로 平均値와 確率을 報告하고 있는 것이 <表 I>이다.

表 I . 尺度別 平均値와 確率(實驗 I)

		好 感 的		厭 惡 的		肯 定 的 自 己 表 現 情 報	否 定 的 自 己 表 現 情 報
		記 述	非 記 述	記 述	非 記 述		
自 己 記 述 度 評 定	高 不 安	29.48 (.73)	10.52 (.26)	7.52 (.19)	32.48 (.81)	61.96 (.77)	18.04 (.22)
	低 不 安	27.43 (.68)	12.57 (.31)	8.52 (.21)	31.48 (.78)	58.91 (.73)	21.09 (.26)
即 時 再 生	高 不 安	8.57 (.29)	3.00 (.28)	2.00 (.28)	7.52 (.23)	16.09 (.26)	5.00 (.28)
	低 不 安	8.86 (.30)	3.38 (.27)	1.52 (.24)	5.95 (.18)	14.81 (.24)	4.90 (.23)
遲 延 再 認	高 不 安	19.76 (.67)	7.67 (.73)	4.90 (.65)	19.76 (.61)	39.52 (.64)	12.57 (.69)
	低 不 安	19.05 (.69)	8.24 (.65)	5.38 (.63)	19.13 (.61)	38.18 (.65)	13.62 (.64)

- 1) 好感項과 厭惡項은 각기 40 個 問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交叉部分(cell)의 첫째 수치는 平均項數 그리고 밑에 있는 괄호안의 것은 平均確率을 나타낸다.
- 2) 好感的(情報)이란 內容이 肯定的이며 좋아할만한 것을 가르키며 厭惡的(情報)이란 內容이 否定的이며 싫어할만한 것을 가르킨다. 그리고 肯定的 自己表現情報란 好感的인 것을 自己記述로 그리고 厭惡的인 것을 自己非記述로 評定한 것을 합한 것이고 반대로 否定的 自己表現情報는 好感的인 것을 自己非記述로 그리고 厭惡的인 것을 自己記述로 評定한 項目들을 합한 것으로 定義하였다.

資料의 分析은 주로 檢査別로 不安(2)×自己記述度(2)×好惡度(2)와 不安(2)×自己表現情報(2)의 두가지 混合設計에 따라 變量分析하였다. 自己表現情報의 變因은 好感項을 記述로 그리고 厭惡項을 非記述로 評定한 것을 肯定的 自己表現情報로 그리고 好感項을 非記述로 그리고 厭惡項을 自己記述로 評定한 것을 否定的 自己表現情報로 定義한 두가지의 水準을 가지게 하였다.

첫째, 好惡資料의 自己記述度評定の 結果를 살펴 보기로 한다. 問項數를 準據尺度로 하여 分析해 보았더니 이 變因의 主效果는 $F(1, 40) = 19.24, p < .01$ 로서 그리고 好惡變因과 自己表現情報變因의 相互作用效果는 $F(1, 40) = 126.99, p < .01$ 로서 각기 統計的으로 有意하였다. 相互作用效果의 內容은 好感項은 보다 自己를 記述하는 것으로 그리고 厭惡項은 보다 自己를 非記述하는 것으로 評定하는 것인데 이는 달리 말하면 被驗者들은 스스로를 보다 肯定的으로 評定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全體評定中 肯定的 自己表現情報는 80問項中 60.44問項(약 76%) 그리고 否定的 自己表現情報는 80問項中 19.57問項(약 24%)으로서 이의 主效果는 $F(1, 40) = 127.31, p < .01$ 로서 두 水準間의 差異는 統計的으로 有意하였다. 事實 이들의 差異는 오히려 有意味한 差異같이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結果는 被驗者들은 自己를 보다 肯定的으로 評定하고 있다는 바로 앞서의 陳述을 다시 確認하는 셈이 된다. 두가지 混合設計의 어디에서도 不安變因의 主效果나 相互作用效果는 有意하지 아니 하였다. 그러나 肯定的 自己表現情報와 否定的 自己表現情報別로 보면 上位不安集團은 각기 약 77%와 23%이고, 그리고 下位不安集團은 각기 약 74%와 26%였음은 注目해 볼만하다. 準據尺度를 確率로 하여 分析한 結果는 앞서의 結果와 大同小異하였다. 그리고 親近度評定內容과 自己有意度 評定內容은 假說의 檢證에는 關係없는 것이기 때문에 分析하지 아니하였다.

둘째, 即時再生檢査의 結果를 提示해 본다. 分析의 準據尺度로서 再生數를 利用할 수도 있지만 再生數를 該當 交叉部分의 評定數로 나누기

하여 計算한 再生確率을 活用할 수도 있을 것이다. 論理的으로 보면 確率의 分析이 보다 意味로울 것 같지만 우선 再生數를 基準으로 한 分析부터 提示해 본다. 不安變因의 主效果는 有意하지 아니하였고 다만 不安×材料의 好惡度 變因의 相互作用效果는 $F(1, 40) = 2.85, p < .10$ 으로서 周邊的으로만 統計的으로 有意하였다. 平均的으로 보면 好感項 및 厭惡項別로 上位不安集團은 11.57(確率.29)와 9.52(確率.26) 그리고 下位不安集團은 12.24(確率.29)와 7.47(確率.21)로서 이들을 作圖해 본 것이 <그림 1>이다. 그림은 不安水準이 높은 사람은 낮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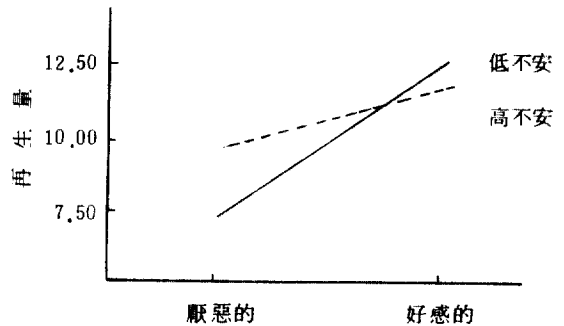


그림 1. 不安과 材料好惡度の 相互作用效果

對應集團과 比較해 보아 好感資料의 把持水準은 비슷하지만 厭惡資料에 대한 것은 오히려 보다 優秀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好惡資料變因이 $F(1, 40) = 37.40, p < .01$ 로서 統計的으로 有意하였다. 즉 全體的으로 보아 好感項은 23.81問項(平均再生確率.29) 그리고 厭惡項은 16.99問項(平均再生確率.23)이 再生되었는데 이는 好感的의 情報資料가 더 잘 再生된다는 것을 指示해 준다. 그리고 再生確率을 準據尺度로 하여 分析해 보았더니 自己表現情報變因(自己에 관한 肯定的 또는 否定的 情報)의 主效果는 有意하지 아니 했지만 不安×肯定的-否定的 自己表現情報變因의 相互作用效果는 다소 周邊的이지만 $F(1, 40) = 2.86, p < .10$ 로서 有意하였다. 이는 上位不安集團의 平均再生水準은 下位不安集團과 견주어 보아 肯定的 自己表現情報에서는 거의 비슷하지만 否定的 自己表現情報에서는 상당정도 보다 더 優秀하다는 것을 意味하고 있다.

세째, 遲延再認檢査의 分析結果를 살펴 본다. 再認數를 基準으로 했을 때는 自己記述度變因이 $F(1, 40) = 6.85, p < .05$ 로서, 그리고 自己記述度 × 好惡資料變因의 相互作用效果만이 $F(1, 40) = 13.02, p < .01$ 로서 統計적으로 有意하였다. 그리고 再認確率을 準據로 하여 分析했을 때는 어떠한 變因의 主效果도 有意하지 아니하고 다만 不安 × 自己表現情報變因의 相互作用效果만이 $F(1, 40) = 5.82, p < .05$ 로서 統計적으로 有意하였다. 이를 作圖한 것이 < 그림 2 > 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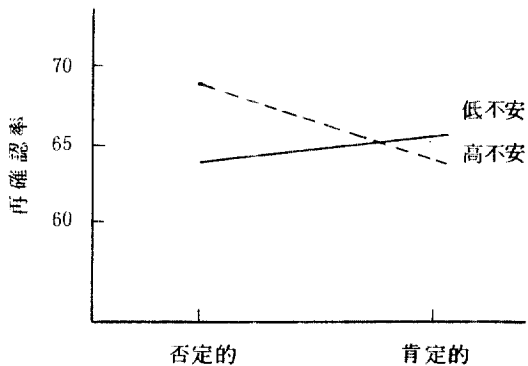


그림 2. 自己關聯情報處理條件에서의 不安과 自己表現情報の 相互作用效果

上位不安集團의 遂行水準은 下位不安集團과 比

較해 보아 平均再認確率이 .67 대 .64로서 有意하지는 아니하지만 그래도 다소는 보다 優秀할 程度라는 事實 그리고 不安한 사람들은 肯定的 自己表現情報에서는 별로 差異가 없지만 否定的 自己表現情報의 再認水準은 比較集團보다 오히려 상당히 뛰어나고 있음은 印象的이다.

이제 實驗Ⅱ의 結果를 提示해 보기로 한다. 이의 結果를 檢査別 및 變因類目別로 平均值와 確率을 본 것이 < 表 2 > 이다. 分析方法과 設計는 實驗Ⅰ과 同一하다.

먼저 好惡材料의 自己記述度評定의 結果부터 알아 본다. 評定問項數를 準據尺度로 하여 資料를 分析해 보았더니, 不安(2) × 材料의 好惡度(2) × 自己記述度(2)의 混合設計의 ANOVA 結果는 自己記述度變因의 主效果가 $F(1, 40) = 12.47, p < .01$ 로서 有意하였다. 이러한 有意한 結果들이 보여주고 있는 內容은 實驗Ⅰ과 같다. 그리고 分析의 尺度를 「確率」로 했을 때도 結果는 흡사하였다.

둘째, 即時再生檢査의 結果를 再生確率을 準據尺度로 하여 分析해 본 結果를 본다. 材料의 好惡度變因의 主效果가 $F(1, 40) = 29.37, p < .01$ 로서, 그리고 好惡度 × 自己記述度變因의 相互作用效果가 $F(1, 40) = 136.94, p < .01$ 로서

表 2. 尺度別 平均值와 確率(實驗Ⅱ)

		好 感 的		厭 惡 的		肯 定 的 自 己 表 現 情 報	否 定 的 自 己 表 現 情 報
		記 述	非 記 述	記 述	非 記 述		
自 己 記 述 度 評 定	高 不 安	26.86 (.67)	13.14 (.33)	7.62 (.19)	32.38 (.81)	59.24 (.74)	20.76 (.26)
	低 不 安	31.24 (.78)	8.76 (.22)	5.86 (.14)	34.14 (.85)	65.38 (.81)	14.62 (.18)
即 時 再 生	高 不 安	9.33 (.35)	4.19 (.30)	2.00 (.27)	7.90 (.24)	17.23 (.30)	6.19 (.29)
	低 不 安	11.24 (.36)	3.00 (.28)	1.05 (.29)	9.71 (.28)	20.95 (.32)	4.05 (.29)
遲 延 再 認	高 不 安	18.38 (.68)	8.33 (.63)	4.19 (.48)	18.33 (.56)	36.71 (.62)	12.52 (.56)
	低 不 安	21.05 (.67)	5.67 (.59)	3.52 (.64)	21.24 (.61)	42.29 (.64)	9.19 (.62)

1) 表의 作成方法은 < 表 1 > 과 同 일 함.

역시 統計的으로 유의하였다. 이들의 內容은 實驗 I의 것과 동일하였다. 不安(2) × 肯定-否定的 自己表現情報(2)의 混合設計를 再生數를 準據로 하여 分析했을 때는 自己表現情報의 主效果가 $F(1, 40)=136.92, p < .01$ 로서, 그리고 不安 × 自己表現情報의 相互作用效果가 $F(1, 40)=4.11, p < .05$ 로서 有意하였지만 從屬尺度를 再生確率로 했을 때는 이들의 어느 것도 有意하지 아니하였다. 實驗 I의 結果와 對比해 보아 흥미로운 差異를 보이는 것은 平均再生水準은 이제 反轉하여 平均 23.42 대 25.00으로 비록 統計的으로 有意하지는 아니하지만 上位不安集團이 下位比較集團과 견주어 보아 오히려 낮아지게 되었다는 點, 그리고 實驗 I의 條件에서는 上位不安集團이 肯定的 自己表現情報資料에서는 거의 비슷하지만 否定的 自己表現情報資料에서는 再生水準이 오히려 더 優秀하였지만 이제는 이러한 差異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點등이다. 특히 이들은 記述로든 非記述로든 간에 厭惡材料의 處理와 關聯되어 있다는 것, 구체적으로 보아 厭惡-記述 또는 厭惡-非記述의 어느 것이든 間에 厭惡的 資料의 再生水準이 實驗 I의 條件과 比較해 보아 현저하게 떨어졌다는 것과 類關한다는 것을 注目해 보고자 한다.

세째, 遲延再認檢査의 資料를 分析한 것을 본다. 再認數를 準據로 하여 分析한 結果는 好惡度變因의 主效果가 $F(1, 40)=9.06, p < .01$ 로서, 그리고 自己記述度 × 好惡度の 相互作用效果가 $F(1, 40)=103.33, p < .01$ 로서 統計的으로 有意하였으며 이들이 示唆하는 바는 여타의 分析에서의와 同一하다. 같은 準據를 가지고 한 不安 × 自己表現情報의 混合設計의 分析에서는 自己表現情報變因의 主效果만이 $F(1, 40)=102.15, p < .01$ 로서 有意하였다. 그러나 實驗 I에서와 마찬가지로 再認確率을 準據尺度로 使用했을 때는 上述한 바 있는 두가지의 混合設計分析에서 不安 × 自己表現情報에서 不安의 主效果와 不安 × 自己表現情報의 相互作用效果만이 각기 $F(1, 40)=3.15, p < .10$ 으로, 그리고 $F(1, 40)=2.86, p < .10$ 으로 모두 周邊的으로만 有意하였다. 相互作用의 內容을 作圖해 본 것이 <그림 3>인데 이는 <그림 2>와는 印象的으로

로 對照的이다. 上位不安集團의 遂行水準을 下位不安集團의 것과 比較해 보면 材料가 自己를 肯定的으로 表現하는 것일 때는 <그림 2>에서의 흡사하게 각기 平均確率 .62 대 .64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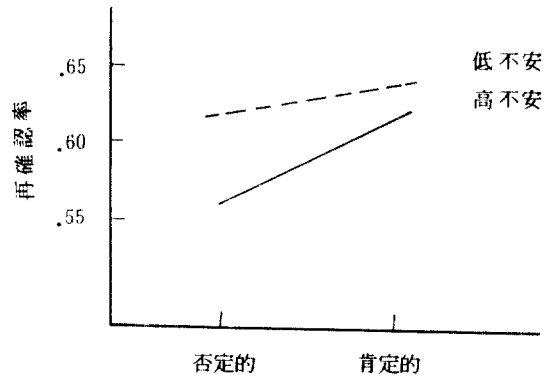


그림 3. 意圖的 學習條件에서의 不安과 自己表現情報의 相互作用效果

조하게 낮은 水準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비슷하다. 그러나 否定的 自己表現의 情報에서는 <그림 2>와 <그림 3>의 모습은 완전히 뒤바뀌고 있다. 즉 上位不安集團의 再認水準이 急激하게 떨어져 각기의 平均再認確率は .56과 .62를 보이고 있다. 不安한 사람들의 再認水準은 덜 不安한 사람들과 比較해 보아 平均確率으로 .59와 .63으로 有意하게 劣等함을 보이는 것도 否定的 自己表現情報資料에서의 把持水準이 이처럼 急激하게 低下하는 것과 類關된 것 같다.

論 議

얻은 結果는 분명하게 假說을 支持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높은 不安水準이 미치는 一般的인 遂行缺損效果는 情報材料의 情意的 性質과 情報處理의 戰略에 따라 變容하고 있다. 이제 간단히 論議를 展開해 본다. 實驗者가 中立的 材料를 外的으로 提示하면 被驗者들은 그것을 주어진 데로 處理해야 하는 것이 많은 研究들이 가지고 있는 傳統的인 設計인데 여기에서는 거의 例外없이 上位不安集團의 遂行水準은 不安水準이 낮은 比較集團과 견주어 보아 劣等하다는 負的인 遂行缺損效果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處

理解야 하는 情報材料가 좋아할만한 것이거나 싫어할만한 것으로서 好惡의이고 情意的 音調를 띄운 것이라면, 이러한 材料들이 바로 自己의 性格特性을 表現하는 것이라면, 그리고 이러한 內容情報을 自己關聯하여 處理하게 한다면 높은 不安이 미치는 負的効果는 變容되는가라는 疑問을 提起하였다. 좋아할만한 또는 싫어할만한 性格特性을 表現하고 있는 形容詞들을 利用하여 각기 好感材料와 厭惡材料를 製作하였다. 그리고 實驗Ⅰ에서는 好惡材料를 緊張이 별로 作用하지 않는다고 보는 附隨的 學習條件에서 自己特性과의 關聯속에서 處理하게 하였다. 實驗Ⅱ에서는 同一한 好惡材料를 利用하였지만 自己關聯의 處理條件이 아니었으며 그리하여 不安의 一般的인 負的 遂行缺損效果를 例示하는 研究設計에 보다 接近하게 하였다.

好感材料 또는 厭惡材料를 自己關聯하여 處理하도록 했을 때는, 어떠한 把持測定條件에서도, 上位不安集團의 平均遂行水準이 下位不安集團과 比較해 보아 劣等하지 아니하였다. 사실 이들의 平均遂行水準은 有意하지는 아니 하였지만 그러나 一貫性있게 오히려 優秀하였다. 이것은 Kenan과 Baillet(1980)이나 Müller와 Courtois(1980)등의 結果와 一致하는 것이지만 研究의 結果를 보다 면밀하게 吟味해 보면 우리는 더욱 興味로운 側面들을 찾아볼 수 있게 된다. 自己를 肯定的으로 表現해 주는 形容詞리스트는 好感的인 內容의 것을 自己記述로 評定한 것과 厭惡的인 것을 自己를 記述하지 아니하는 즉 自己非記述로 評定한 것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는 結局 肯定的 自己表現情報를 意味하게 된다. 반면에, 自己를 否定的으로 表現해 주는 形容詞리스트는 好感的인 것을 自己非記述로 評定한 것과 厭惡的인 것을 自己記述的인 것으로 判斷한 것으로 構成되는데 이러한 것들은 實際 否定的 自己表現情報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上位不安集團은 下位不安의 對應集團과 전주어 보아 肯定的 自己表現情報의 把持에서는 대개 비슷하였지만 否定的 自己表現情報의 把持에서는 오히려 상당히 더 뛰어난 印象的이다. 그러나 自己關聯의 情報處理條件을 變更시키면 전체의 모습은 急激하게 反轉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는 上位不安集團의 낮은 遂行水準이라는 一般的인 遂行缺損效果를 注目하게 된다. 그러면 好惡材料를 自己關聯處理할 때 일어나는 것으로 보이는 不安의 遂行缺損의 變容은 주로 어디에서 일어나는 것일까? 이에 대하여서는 自己關聯의 情報處理條件에서는 否定的 自己情報의 把持水準이 두드러지게 向上된다는 것을 指摘해야 하겠다. 다시 말하면 自己表現情報를 自己關聯處理하면 自己를 否定的으로 表現하는 情報材料의 處理가 크게 促進되고 있다. 이를 더욱 들여다 보면, 좋아할만하지 아니하고 바람직하지 아니한 內容의 情報 즉 厭惡的 情報의 處理가 보다 용이해지며 특히 厭惡-自己記述情報 즉 自己에 대한 否定的 表現의 情報가 自己關聯處理를 通하여 가장 促進된다는 것을 注目할 수 있다.

이들을 通하여 우리는 세가지의 結論들을 내려볼 수 있다. 첫째, 不安水準이 增加하면 自己沒頭 내지 自己管理는 따라서 增加한다. 自己管理란 成功의 缺如 또는 失敗의 知覺을 中心으로 하고 있는 自己狀態의 處理에 關與하는 것이며 그러므로 이것은 正작 處理해야 하는 課題에 配分해야 하는 限定된 認知的 에너지를 消費하게 되어 結果적으로 課題遂行에 負的效果를 미친다는 것이 一般的인 說明이다. 中立的 材料뿐만 아니라 情意的 音調를 띄운 好惡의 情報材料의 경우라도, 特別히 自己特性 또는 行動狀態와 關聯하여 處理할 것을 要求하지 아니하는 限, 不安의 遂行缺損效果는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둘째, 材料가 個人的 狀態와 關聯되어 있다고 하여 不安의 遂行缺損效果가 반드시 變容되는 것은 아니다. 處理해야 할 情報材料가 좋아할만한 것이거나 반대로 싫어할만한 어떤 性格特性의 것이라면 그들은 肯定的 또는 不定的으로 自己自身과 關聯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肯定的 또는 否定的 自己情報의 材料가 된다. 그렇다면 이때의 自己管理라고 하는 情報處理는 이미 課題不適切한 것이 아니라 課題適切한 것이 아니겠느냐는 생각도 가져볼 수 있다. 그러나 얻은 結果는 그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情報의 內容이 自己關聯의 내지 自己表現的이라고 하여 이들의 認知的 處理가 반드시 自己關聯的

이라는 保障은 없다는 말이 된다. 세째, 情報를 自己關聯하여 處理하면 不安의 遂行缺損效果는 意義있게 變容되며 이러한 變容은 厭惡的 材料의 處理에서 특히 현저하였다. Müller 와 Co-urtois(1980)은 “不安한 被驗者들은 記述의 材料에서는 낮은 不安被驗者보다 더 잘 遂行하였고, 一般的인 不安缺損은 非記述的 資料에서만 일어났다”고 指摘하고 있다. 이 말은 바꾸어 보면, 中立的 刺戟은 上位不安集團에게는 不利하다는 이야기가 된다. 情報를 自己關聯處理하면 情意的인 自己狀態表現의 情報材料中에서 好感的인 것의 把持水準도 좋아졌지만 厭惡的 材料의 把持水準은 印象의으로 向上되었다. 이제 몇가지 疑問을 제기해 보게 된다. 왜 厭惡的 情報의 處理가 自己關聯處理를 通하여 특별하게 달라지는가? 그리고 自己關聯處理는 材料의 性質에 따라 辨別의 效果를 가지는 것인가? 不安한 사람들이 沒頭한다는 自己管理란 바로 自己特性側面을 自己關聯處理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을까? 이에 대하여 우선 出現確率推定 (estimates of occurrence probability, Bruner, 1957)를 檢討해 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否定的 材料에서는 抑壓(repression)같은 것이 생겨 出現確率推定이 낮아지고 따라서 確認識域 (identification threshold)이 높아진다고 본다. 반대로 肯定的 材料에서는 거꾸로 出現確率推定이 높아지고 따라서 警戒狀態(vigilance)가 活性化되어 確認識域이 낮아진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差別의 效果는 不安과 같은 情緒狀態에 따라서 더욱 媒介化된다고 볼 수 있다. 즉 不安한 사람의 경우는 材料에 따라 知覺하고 把持하는 差異가 더욱 深化되며 특히 否定的 材料에서 缺損現象을 보인다고 推理해 볼 수 있다. 그러나 端緒活用制限假設(cue-utilization restriction)을 援用함으로써 不安을 函數로 한 自己關聯處理가 특히 否定的 自己表現情報에 敏感한 것을 說明해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Hamilton (1980)은 不安은 外的으로 주어지는 課題와 競爭하는 負的情報라고 解釋하고 있다. 결국 自己管理란 이러한 負的情報를 處理하는 것이며 이러한 競爭的인 것들의 處理때문에 不安은 把持에 遂行缺損效果를 미친다고 보게 된다. 그러나 이

같은 說明은 本研究에서처럼 處理해야 하는 情報材料가 個人的으로 適切한 것으로서 그것을 自己關聯處理하면 不安의 遂行缺損效果는 어떻게 變容하며 더욱이 그것이 厭惡的 情報와 어떻게 類關한 것인지를 說明하기 어렵다. 이를 說明하는데는 自己왜마 내지 自己體制原型(self-system prototype)도 중요해진다. 어떤 事象(event)이란 바로 記述의 命題들의 結集(cluster of descriptive propositions, Bower, 1981)이라고 생각한다면 自己情報란 역시 記述의 命題들의 結集이며 記述의 命題들의 結合網狀 같은 結集들이 바로 自己體制原型을 이루는 端緒가 된다. 그런데 不安水準이 높아지면 自己왜마에 대한 多樣한 端緒情報에의 接近이 遮蔽되며 그리하여 精巧化 處理는 缺損하기 쉬운 것이다. 精巧化處理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自己性格 또는 自己行動狀態에 대한 側面리스트들의 處理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皮上的인 總括의 水準에 머물게 되며 端緒의 適切性등을 辨別하므로써 可能的인 精巧化處理가 어렵게 된다. 왜냐하면 精巧化處理는 情報端緒를 폭넓게 쓸 수 있을 때 이루어진다고 보기 때문이다. 어떻게 不安이 심하여지면 自己情報를 處理하기 위하여 可用할 수 있는 端緒에의 接近이 制限되며 그리하여 이때의 自己關聯處理는 皮上的이게 된다. 이때 말하는 自己關聯情報의 處理가 바로 一般文獻에서 말하는 自己管理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이러한 處理가 記憶해야 하는 課題가 아니라면 그것은 당연히 課題不適切한 것으로 遂行缺損效果를 結果하게 될 것이다. 自己情報의 處理라고 하더라도 端緒活用이 制限되어 結果적으로 遮蔽되고 歪曲된 自己知覺의 情報를 處理하고 있다면 不安의 缺損效果는 여전할 수 밖에 없다. 더욱이 否定的 自己表現情報에 關聯되어 있는 端緒는 肯定的인 경우만큼 자주 쓰이지 아니하며 따라서 덜 有意味할 것이다. 그러므로 높은 不安에 直面할 때와 같은 경우 이러한 否定的 自己情報에 대한 端緒는 쉽게 抑壓될 것이며, 遮蔽될 것이며, 따라서 辨別되고 精巧化되어 情報處理에 쓰이기가 어려워질 것이다. 不安水準이 높아지면 쉬운 課題의 反應은 促進되고 어려운 課題는 妨害받는다는 Spence 와

Spence(1966)의 이론은 이러한 추리를 더욱 가능하게 한다. 늘상 대하고 親近한 것 그리고 皮上的인 端緒의 處理가 쉬운 課題이고 반대로 防衛的이며 면밀하게 精巧化되어야 하는 것이 어려운 課題임은 自明하다 할 수 있다. 그리고 皮上的으로 處理하고 있을 때의 自己像은 歪曲된 自己이미지라 불러도 좋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假說에는 周邊的인 것이지만 그래도 關聯되어 있는 것 같은 두가지의 結論들을 整理해 본다. 첫째, 被驗者들은 一般的으로 自己를 보다 肯定的인 存在로 評定하고 있다. 肯定的인 評定傾向은 不安水準과는 오히려 無關한 것 같다. 이것은 不安한 自我는 반드시 成功이 모자라는 失敗作으로만 自己知覺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 된다. 다만 肯定的인 것의 肯定보다는 否定的인 것의 否定이 다소 두드러진 것 같이 보이기도 한다. 둘째, 좋아할만한 內容의 情報資料 즉 好感的인 情報은 싫어할만한 즉 厭惡의 情報보다 把持水準이 더 높았다. Tyler 와 Voss(1982)는 사람은 自己의 態度와 부합하는 情報를 더 잘 記憶한다고 報告하면서 態度는 態度支持的인 資料의 略號化와 引出을 增進시키는 傾向이 있다고 說明하는데 그러면 好感的인 情報은 厭惡의 情報와 比較해 보아 왜 把持가 促進되는 것일까? 好感的인 情報은 보다 自己記述的으로 判斷되며 따라서 이들은 보다 自己表現的이게 되며 그리고 性格特性이 原型에 따라서 情報處理機制에 關與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Markus, 1977; Cantor & Mischel, 1977). 그렇다면 사람들은 自己가 所有하고 있는 特性에 대하여서는 行動的인 例(behavioral exemplar)들을 보다 많이 生成할 수 있으며 그리하여 好感的인 情報의 精巧化處理를 可能하게 한다고 보아도 되겠다. 만약 이러한 것이 眞實이라면, 好感的인 情報의 把持水準은 促進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參 考 文 獻

金濬琛. (1982). 人間學習 및 記憶, 서울: 中央適性出版部,
金濬琛와 孫基俊. (1982). 場面緊張, 問項困難

度情報 및 檢査不安水準이 檢査遂行에 미치는 效果. 教育學研究(韓國教育學會), 2, 22-29.

- Anderson, N.H. (1968). Likableness ratings of 555 personality-trait word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 272-279.
- Benjamin, M., McKeachie, W.J., Lin, Y., & Holinger, D.P. (1981). Test anxiety: Deficits in information processing.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3, 816-824.
- Bower, G.H. & Gilligan, S.G. (1979) Remembering information related to one's self.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13, 420-432.
- Bower, G.H. (1981). Mood and memory. *American Psychologist*, 36, 2, 129-148.
- Bruner, J.S. (1957). On perceptual readiness. *Psychological Review*, 64, 123-152.
- Cantor, N. & Mischel, W. (1979). Prototypicality and personality: Effects on free recall and personality impression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13, 187-205.
- Cantor, N. & Mischel, W. (1977). Trait as prototype: Effects on recognition memor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5, 38-48.
- Eysenck, M.W. (1977). *Human memory: Theory, research, and individual differences*. Oxford: Permonon Press.
- Hamilton, V. (1980). An information processing analysis of environmental stress and life crises. In I.G. Sarason and C.D. Spielberger (Ed.), *Stress and anxiety*. Vol. 7, Washington: Hemisphere.
- Keenan, J.M. & Baillet, S.D. (1979). Memory for personality and socially significant events. In R.S. Nickerson (Ed.), *Attention and Performance*. VIII. Hillsdale, N.J.: Erlbaum.
- Kim, Y.C. (1981). Test anxiety and cue utilization deficit.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3, 2, 77-84.
- Kuiper, N.A. & Rogers, T.B. (1979) Encoding of personal information: Self-other differ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 37, 4, 499-514.
- Lang, K.A., Mueller, J.H., & Nelson, R. E. (1983). Test anxiety and self-schemata. *Motivation and Emotion*, 7, 2, 169-178.
- Liebert, R.M. & Morris, L.W. (1967). Cognitive and emotional components of test anxiety: A distinction and some initial data. *Psychological Reports*, 20, 975-978.
- Markus, H. (1977). Self-schemata and processing information about the self.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5, 63-78.
- McKeachie, W.J., Pollie, D., & Speisman, J. (1955). Relieving anxiety in classroom examinations.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50, 93-98.
- Mueller, J.H., Courtois, M.R., & Bailis, K.L. (1979). Self-reference in facial recognition. Paper presented at the Midwestern Psychological Association, Chicago.
- Mueller, J.H. & Courtois, N.R. (1980). Retention of self-descriptive and nondescriptive words as a function of test anxiety level. *Motivation and Emotion*, 4, 4, 229-237.
- Parkin, A.J., Lewinsohn, J., & Folkard, S. (1982). The influence of emotion on immediate and delayed retention: Levinger & Clark reconsidered. *British Journal of Psychology*, 73, 389-393.
- Postman, L. & Bruner, J.S. (1948). Perception under stress. *Psychological Review*, 55, 314-323.
- Rogers, T.B., Kuiper, N.A., & Kirker, W. S. (1977). Self-reference and the encoding of personal inform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5, 9, 677-688.
- Schwartz, S. (1975). Individual differences in cognition: Some relationships between personality and memory.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9, 217-225.
- Taylor, S.E. (1983). Adjustment to threatening events: A theory of cognitive adaptation. *American Psychologist*, 38, 1161-1173.
- Tobias, S. (1977). A model for research on the effect of anxiety on instruction. In Sieber, J.E., O Neil, H.F., Jr., & Tobias, S. (Eds.), *Anxiety, learning, and instruction*. New York: John Wiley.
- Tyler, S.W. & Voss, J.F. (1982). Attitude and knowledge effects in prose processing. *Journal of Verbal Learning and Verbal Behavior*, 21, 524-538.
- Walker, E.L. (1958). Action decrement and its relation to learning. *Psychological Review*, 65, 417-429.
- Zajonc, R.B. (1984). On the primacy of affect. *American Psychologist*, 39, 2, 117-123.
- Zajonc, R.B. (1980). Feeling and thinking: Preferences need no inferences. *American Psychologist*, 35, 151-175.

Self-Referent Processing of Personality-Describing Adjectives as a Function of Test Anxiety Level

Yung-Che Kim

Keimyu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examine whether the usual performance deficit effect of anxiety on retention changed as the materials to be remembered were emotionally toned and personally relevant and, furthermore, as they were requested to be self-referent processed. Forty adjectives used had a generally positive affective tone as personality descriptors, and another forty were negative. Adjectives used were describing personality traits either in the positive or in the negative way. The study employed the mixed factorial design of test anxiety (2) \times self-descriptiveness (2) \times likable-dislikable materials (2). In the Experiment I, subjects were asked to rate adjective words in terms of self-descriptiveness, familiarity, and personal meaningfulness. Experiment II used the intentional learning condition, which was contrasted with the incidental condition of the Experiment I.

Firstly, self-monitoring increased as test anxiety level increased. Only the cognitive worry factor was used in test anxiety measurement. Self-processing of the individual's own self-traits might usually be task-irrelevant, resulting in the adverse effect of anxiety, when neutral materials were used. Secondly, processing of the materials related to self-description was not necessarily self-referenced and, thereby, no significant change of the deficit was followed. Thirdly, the performance deficit was significantly changed when self-referent processing involved the self-related materials. The change was particularly noted with dislikable materials. They were discussed with restriction of cue utilization hypothesis.